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남편의 인지가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Wife's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and Husband's Perception about I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김경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Prof. : Kyung Sook, Kim

◀ 목 차 ▶

I. 서론	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I.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문제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influence of wife's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and husband's perception about i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to find ou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m. For these purposes reviewing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were conduct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couple's psychological variables (ie,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and of communication) were relatively high. The wife's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was relatively morphogenesis and the husband's perception about wife's it was relatively morphogenesis. And the couple's degree of family life satisfaction were relatively high.
- 2) Influential variables on wife's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were level of education,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and of communication. And influential variables on husband's perception about wife's it was degree of communication.
- 3) Influential variables on wife's the degree of family life satisfaction were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and of communication. And influential variables on husband's it were level

* 본 논문은 1997년도 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of education, job,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and of communication.
- 4) The wife's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and husband's perception about wife's it were to predict the couple's degree of family life satisfaction.
- 5) In cause-effect pathway model, level of education · job ·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 ·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and of communication showe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wife's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or husband's perception about wife's it.

I.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인간의 정신생활과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도시화·기계화·국제화 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는 환경의 변화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정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의 주요한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던 많은 기능들 즉 자녀의 사회화라든지 또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등의 기능들이 사회로 이전되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정보화 사회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서의 적응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의 수용속에서도 가족의 결속 및 정서적 유대와 같은 기능들이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정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증가하는 새로운 요구들 속에서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의 유지·발전과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정을 관리하는 목적은 가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가족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의 가치·목표·표준을 고려하면서 제한된 자원으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목적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주부가 행하는 가정관리행동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은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따라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할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한다는 것은 관리행동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의 만족을 통하여 가족은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이정우 외, 1997:31-32).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분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들(이정우,1982; 조영희, 1986; 이정우와 오경희,1988; 이안나·신효식·우희정,1991; 이정우와 박미금,1992; 오경희,1992)과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주부의 만족이나 행복 등(조미환,1990; 최동숙,1991; 김경숙,1993)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정에서 주부가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원 전체의 목표달성과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따른 주부의 만족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을 어떻게 인지함으로써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대의 가정생활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을 함께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이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더불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인들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 행동유형

가족은 주변의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족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하려고 한다. 이때 가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융통성 및 개방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보수성과 폐쇄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한다(Broderick과 Smith, 1979 :113). 즉 가정은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어떠한 환경적 여건 속에 있으며, 이 가운데서 목표달성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문숙재, 1981:70),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떠한 가치와 목표 및 기대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에서 유형의 차이를 나타낸다(Huguley, 1976:6).

이와 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Nickols(1964:64)는 주부의 가정관리성향은 가정생활중 끊임없이 발생하는 관리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하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에서 주부는 양극적인 연속체 유형으로서 인간중심형(person-centered)과 과업중심형(task-centered)의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Buckley(1967)는 인간의 행동유형을 사회시스템 이론에 입각해서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개방적이며 수용적인가에 따라 안정지향형(morphostatic pattern)과 변화지향형(morphogenic pattern)으로 구분하였다. Deacon과 Firebaugh(1981,70-73)는(morphostatic system), 변화지향적(morphogenic system), 무작위적인 체계(random system)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Buehler와 Hogan(1986)은 자원중심적(resource-centered style), 목표중심적(goal-centered style), 제약적 유형(constrained style)으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정관리 행동유형 중에서 안정지향형은 목표지향적 계획수립을 하며, 구조적 변화를 회피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행동은 효율적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제한되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유형이다. 반면에 변화지향형은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목표는 새로운 정보나 기회에 따라 수정되며, 행동은 시스템을 성장, 발달시키는 생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긴장과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유형이다(Beard와 Firebaugh, 1978).

이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Deacon과 Firebaugh(1981:20-21)는 다양한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계속적으로 한 유형으로서만 기능할 수는 없으며, 여러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체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적응성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가정관리 행동유형 중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행동유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이 구분법을 선택하였다.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 중에서,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족환경적·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낮고, 자녀수가 적으며, 가족간의 의사소통도가 높고 결혼생활행복도가 높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한다고 하였다. 조미환(1990)도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주부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동숙(1991), 김경숙(1993)은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2. 가정생활만족

생활만족이란 매일의 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및 자신의 목적달성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녀 자신을 가치롭게 인정하고 낙천적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Newgarten, Havighurst와 Tobin,1961:141).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은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Medley,1976:488). 이에 김명자(1982)는 생활만족이란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로서,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감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현상으로 심리적으로 인과 환경적요인에 영향받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활만족이란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목표성취를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않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Kalish,1975).

가정생활만족과 관련하여, 임정빈(1988)은 기대와 실제로 받아들이는 보상간의 일치에서 느끼는 충족감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가정생활만족이라고 하며, 이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두경자(1993)도 가정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만족·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 및 태도를 가정생활만족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의 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Burr(1970)는 가정생활만족을 재정문제의 처리능력·사회적활동·가사작업의 수행·동료감·성생활·자녀와의 관계 등 6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임정빈(1988)은 가정생활만족을 생활표준의 일치·경제적 만족·가족간의 의사소통·시대과의 관계·자녀와의 관계·남편과의 관계·가사노동 영역·생활전반에서 느끼는 만족으로 나누어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조미환(1990)은 남편과의 관계·자녀와의 관계·시대과의 관계·가족간의 의사소통·가사노동·여가·경제·주거영역과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주부는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에서 약간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주부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경숙(1993)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정관리능력과 가정관리 행동유형,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취업주부의 전체적인 가정생활만족은 높은 편이며, 가정관리능력이 높고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주부일수록 가정생활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3. 관련변인 고찰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남편의 가정생활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선행연구에 의한 관련변인은 주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 조영희(1986)는 시간관리면에서는 50대가, 자원관리면에서는 40대가 보다 변화지향적인 행동유형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반대로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안정지향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Newton(1979), 조미환(1990), 김경숙(1993)은 연령이 직접적으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생활만족에 대해서, 임정빈(1988), 최동숙(1991)은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및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Donohue와 Ryder(1982), 오정옥(1986)은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고, 홍신례(1987)는 주부 보다는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2) 교육수준 : 조영희(1986), 조미환(1990), 최동숙(1991)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특히 대졸집단일수록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으나, Beard(1975)는 그 반대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지향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경숙(1993)은 취업주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전체적인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의미있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주부나 부부의 결혼 및 가정생활만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ck,1983; 송말희와 이정우,1986; 임정빈, 1988; 조미환,1990; 최동숙,1991; 김경숙,1993). 그러나 김은숙(1983), Wilson과 Peterson(1988), 김태현과 최정혜(1990)는 교육수준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소득 : 조영희(1986)는 소득이 많을수록 주부가 금전·시간·자원관리면에서 변화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Beard(1975)는 금전관리행동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안정지향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Buehler와 Hogan (1986), 김경숙(1993)은 소득에 따라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Hayes와 Stinnett(1971), 최동숙(1991), 김경숙(1993), 장병옥(1997)은 소득이 많을수록 주부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Donohue와 Ryder,1982; 김은숙,1983; 오정옥,1986; 홍신례, 1987; 김태현과 최정혜,1990)에서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가정생활만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직업 : 조미환(1990), 최동숙(1991), 김경숙(1993)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보다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으며,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남편의 직업법에 따라서 남편이 직업이 비숙련직일 경우에 애정면에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안정지향적이었으며, 판매숙련직·관리직·전문직·사무직인 경우는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생활만족은 주부의 직업유무(Hayes와 Stinnett, 1971; Smith와 동료들,1988; 최동숙,1991)와 남편의 직업(Clearwater와 Harvey, 1988; 임정빈,1988; 이정우와 김경숙,1993)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Donohue와 Ryder(1982), Smith(1985), 오정옥(1986), 이정우와 오경희(1988), 김경숙(1993)는 주부의 취업상태는 남편이나 주부의 결혼생활의 적응이나 가정생활만족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5) 자녀수 : Beard(1975)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금전관리가 안정지향적이라고 하였으나, 이정우와

오경희(1988), 김경숙(1993)은 이와 반대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안정지향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주부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Houseknecht와 Macke (1981), 최동숙(1991)은 그 반대로 자녀수나 가족수가 많을수록 일반주부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반면 Hayes와 Stinnett(1971), 임정빈(1988), 김경숙(1993)은 자녀수나 가족수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남편이나 주부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심리적 변인

(1) 생활수준인지도 :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은 가족의 가치관·육구수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중류층은 미래지향적이고 강한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류층은 현실지향적이고 현재의 안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대신 미래에 대해서는 도전적이 아니거나 부계획적인 경향이 있다(이정우,1982:173). 또한 가정관리에서 상류층의 주부는 가족관계에 보다 비중을 주는데 반하여 하류층의 주부는 가사작업과 가사능력에 관심을 집중시킨다(Schlater,1967:94). 가정관리 행동유형이나 가정생활만족을 살펴보면에 있어서 자신의 가정이 어떠한 생활수준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심리적 변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생활수준만을 가지고 그 관계를 보면, 이정우(1982)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2) 자원적정인지도 : 자원은 어떤 계획을 수행할 때 혹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이정우 외,1997:200). 즉 자원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모든 문제해결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요인이다(Deacon과 Firebaugh, 1988:52). 그러나 자원은 특정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능력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은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원 보다는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인지가 더 중요하다(Rowland와

동료들,1985:218-219).

자원과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에서, Beard와 Firebaugh(1978)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일수록 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동숙(1991)도 자원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자원관리 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경숙(1993)은 자원에 대한 인지가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Wilson과 Peterson(1988), 최동숙(1991), 이정우와 김경숙(1993), 장병옥(1997)은 자원인지도는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라고 하였다.

(3) 의사소통도 : 의사소통은 자신의 표현이나 감정에 근거를 두고 마음속에 있는 상황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서(Deacon과 Firebaugh,1981:100), 가족의 목표설정·목표성취 및 가족행동의 통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Gross와 동료들,1980:153-154). 즉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함을 유지시키며, 생활의 안정과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토록 하는 기능을 한다(Galvin과 Brommel,1982:12-21).

의사소통과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에서,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주부는 보다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으나, 김경숙(1993)는 취업주부의 경우에 오히려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의 만족(이정우와 김경숙,1993)이나 행복(Margaret, 1985)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주부 또는 부부의 만족을 증가시키고 있다(박경자, 1981; 김은숙,1981).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배경에 따라 주부는 어떠한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나타내며, 남편은 주부

의 가정관리 행동을 어떠한 유형으로 인지하는가?

연구문제 2 :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배경에 따라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남편의 인지에 따라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이에 대한 남편의 인지, 가정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질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가정관리 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주부와 남편이 각각 답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변인 중 생활수준인지도는 주어진 최하 1부터 최상 10까지의 연속선 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을 직접 표기토록 하였다.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각 8분항과 9분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66과 .80이었다. 이들의 질문은 5점 likert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질문은 김경숙(1993)의 연구 등을 기초로 하였으며, 각각 6개 하위영역 24분항과 7개 하위영역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질문지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69와 .87이었다. 이들의 질문도 5점 likert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거나 변화지향적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가정생활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중·소도시에 거주

하며,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를 한 쌍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령·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의추출하였으며, 설문지는 남편과 부인용으로 각각의 봉투에 담아 답입교사를 통하여 학생에게 배부하였고, 배부된 설문지에 학생의 부모인 남편과 부인이 자기기재식의 방법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조사시기는 1997년 5월 12-30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한 후 1997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79.6%인 398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33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의 α 계수,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요인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및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변인인 자기 가정의 생활수준인지도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범위 중에서 주부는 5.36점, 남편은 5.29점 정도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1점부터 5점까지의 범위 중에서 주부가 3.41점, 남편은 3.42점 정도로 적정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의사소통도도 5점까지의 범위 중에서 주부는 3.37점, 남편은 3.41점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 변인들에 대해서 부부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인

변인	구분	주부 빈도(%)		남편 빈도(%)		변인	구분	주부 빈도(%)		남편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30대	78(23.4)	32(9.6)	직업	전문기술직	7(2.1)	23(6.9)			
		40대	224(67.3)	227(68.2)		행정관리직	7(2.1)	21(6.3)			
		50대이상	31(9.3)	74(22.2)		사무직	17(5.1)	99(29.7)			
		계	333	333		판매직	26(7.8)	27(8.1)			
	교육수준	국졸	59(17.7)	45(13.5)		서비스직	63(18.9)	59(17.7)			
		중졸	103(30.9)	69(20.7)		생산관리직	33(9.9)	92(27.9)			
		고졸	142(42.6)	153(45.9)		무직	180(54.1)	12(3.6)			
		전문(초)대졸	8(2.4)	13(3.9)		계	333	333			
		대졸이상	2(0.6)	53(15.9)		자녀수	1명	80(24.0)			
	계	333	333	2명			127(38.1)				
	소득	100만원미만	65(22.6)				3명	75(22.5)			
		100-200만원	160(55.6)				4명이상	51(15.4)			
200-300만원		41(14.2)		계	333						
300만원이상		22(7.6)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때문임							
계		288									
심리적 변인	변인	주부		남편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수준인지도	5.36	1.40	5.29	1.42	-1.28					
	자원적정인지도	3.41	.60	3.42	.58	.28					
	의사소통도	3.47	.69	3.41	.65	-1.75					

〈표 2〉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남편의 인지도 및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

	변 인	주 부		남 편		t 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가정관리행동유형	전 체	3.09	.26	3.27	.28	-1.53
	가족의 규칙준수(5점)	2.58	.47	2.71	.49	4.16***
	자원의 활용(5점)	2.56	.63	2.66	.65	2.56*
	가족의 활동(5점)	3.41	.63	3.31	.66	-2.92**
	지역사회 참여(5점)	3.26	.65	3.20	.66	-1.55
	계획의 융통성(5점)	3.50	.69	3.29	.67	-4.78***
	행동의 융통성(5점)	3.31	.41	3.26	.43	-1.51
가정생활만족	전 체	3.53	.56	3.43	.49	-3.88***
	결혼 전 반(5점)	3.82	.82	3.42	.93	33.08***
	재정문제(5점)	3.18	.83	3.12	.81	-1.10
	시태관계(5점)	3.48	.89	3.52	.80	.85
	생활표준의 일치(5점)	3.52	.76	3.52	.74	-.02
	부부관계(5점)	3.64	.88	3.79	.77	3.24***
	부모자녀관계(5점)	3.75	.77	3.74	.80	-.29
	여가 및 지역사회참여(5점)	3.78	.85	3.07	.83	-.12

* P < .05 ** P < .01 *** P < .001

조사대상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전체 3.09 점으로 비교적 변화지향적이었으며, 남편도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비교적 변화지향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표 2〉 참조). 하위영역별로는 주부의 경우 계획의 융통성과 가족의 활동면에서 좀 더 변화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내었고, 가족의 규칙준수와 자원의 활용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지향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도 주부와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주부가 생각하는 정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변화지향적이고 덜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가정생활만족에 있어서는 부부가 모두 약간 만족하는 정도였으나 남편보다는 부인이 좀 더 만족하는 편이었다(〈표 2〉 참조).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때, 주부는 결혼전반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으나 남편은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 만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는 주부의 경우 3.78로 비교적 높은 점수였으나 남편은 3.07로 가장 낮은 만족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남편의 경우 직업 및 사회생활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관련한 활동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부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이에 대한 남편의 인지

1)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회귀분석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계수는 1.12 - 1.95의 분포를 보여 잔차간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위하여 남편의 직업은 생산·노동직을 기준변수로

〈표 3〉 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유형

	가정관리 행동유형		가족의 규칙준수		자원의 활용		가족의 활동		지역사회 참여		계획의 융통성		행동의 융통성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교육수준	.01	.15**	.01	.15*	.01	.11*					.03	.14*		
소득					.05	.23***			.00	.19**				
직업 1														
직업 2			.17	.15*										
주부직업														
자녀수														
생활수준														
인지도														
자원적정	.09	.20**			.20	.20***					.18	.16**	.11	.15*
인지도														
의사소통도	.11	.27***							.42	.45***	.27	.30***		
상수	2.26		1.89		.69		2.32		2.11		2.61		2.96	
R ²	.21		.04		.13		.18		.14		.08		.02	
F 값	23.73***		6.20**		12.68***		29.28***		20.78***		7.20***		6.06*	

b :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직업 1: 남편의 직업중 전문·관리·사무직

직업 2: 남편의 직업중 판매·서비스직

하고, 전문·관리·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을 비교 변수로 하였으며, 주부의 경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주부의 전반적인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자원적정인지도 및 의사소통도였으며, 이들은 총분산의 21%를 설명해주고 있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는 그만큼 가정관리에 대한 지식과 각종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원을 얼마나 적정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가족과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지와 같은 심리적인 현상들에 의해 주부들은 가정관리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규칙준

수와 자원의 활용을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의 활용과 계획의 융통성 면을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었고, 소득이 많을수록 지역사회 참여를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생산·노동직 보다 판매·서비스직일 때 가족의 규칙준수를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업주부 보다는 취업주부가 계획의 융통성을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었다. 심리적 변인인 생활수준인지도는 높을수록 가족의 활동을 안정지향적으로 하고 있었다.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자원의 활용과 계획의 융통성, 행동의 융통성을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활동과 지역사회참여를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편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남편이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어떻게 인지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편의 경우는 가족과의 의사소통도가 높은 경우에 주부가 전반적으로 가정관리행동을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의사소통을 많이 함으로서 주부가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관리에 남편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별로는 남편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가 가족의 규칙준수를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를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생활수준인 지도가 높을수록 주부가 자원의 활용을 변화지향적으로 하며,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규칙준수는 안정지향적으로, 자원의 활용은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남편은 주부가 가족의 규칙준수를 안정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는 변화지향적으로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계획의 융통성과 행동의 융통성 영역에 대해서는 남편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의 가정생활만족

1) 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만족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부는 심리적 변인인 생활수준인지도·자원적정인지도·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총 분산의 62%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심리적 변인이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표 4> 남편의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인지

	가정관리 행동유형		가족의 규칙준수		자원의 활용		가족의 활동		지역사회 참여		계획의 융통성		행동의 융통성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1	.19**										
교육수준									.01	.18**				
소득														
직업 1														
직업 2														
주부직업														
자녀수														
생활수준					.09	.20**								
인지도														
자원적정			-.11	-.13*	.13	.12*								
인지도														
의사소통도	.16	.35***	-.10	-.13*			.50	.49**	.33	.33***				
상수	2.53		2.67		1.68		1.59		1.64					
R ²	.12		.10		.07		.21		.15					
F값	38.35***		10.72***		11.05***		86.27***		25.32***					

b :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직업 1: 남편의 직업중 전문·관리·사무직 직업

* P<.05 ** P<.01 *** P<.001

2: 남편의 직업중 판매·서비스직

〈표 5〉 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의 가정생활만족

	가정생활 만족도		결혼 전 반		재정 문제		시대 관계		생활표준의 일치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교육수준					.00	.18***											
소득																	
직업 1																	
직업 2																	
주부직업																	
자녀 수																	
생활수준	.05	.12**	.07	.11*	.13	.21***	.08	.12*			.06	.12*					
인지도																	
자원적정	.25	.27***	.19	.15**	.56	.41***	.25	.17*	.21	.17**						.61	.44***
인지도																	
의사소통도	.46	.57***	.60	.53***			.39	.30***	.56	.52***	.84	.67***	.53	.48***	.17	.14*	
상수	.80		.79		.36		.83		.84		.41		1.98		.35		
R ²	.62		.43		.35		.22		.38		.50		.24		.27		
F 값	149.85***		70.36***		37.16***		25.96***		85.47***		137.06***		44.81***		52.53***		

b :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직업 1: 남편의 직업중 전문·관리·사무직

* P< .05 ** P< .01 *** P< .001

직업 2: 남편의 직업중 판매·서비스직

나타난 것은, 만족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목표와 바램의 성취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 Burr(1970)의 견해와 같이 객관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하위영역별로는 가정의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 보다는 생산관리직인 경우에 재정문제에 대한 만족이 높으며, 주부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남편의 직업이 생산관리직인 주부가 재정문제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 전문·관리·사무직 중에서 사무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면에서는 오히려 생산관리직의 경우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는 생산관리직인 남편을 가진 주부는 전문·관리·사무직 남편의 주부보다 재정문제에 대한 욕수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리고 심리적 변인인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결혼전반·재정문제·시대관계·부부관계에서의 만족이 높으며,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결혼전반·재정문제·시대관계·생활표준의 일치·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에서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도는 재정문제를 제외한 전체 하위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2) 남편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만족

남편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편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인 경우에 그리고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가 높은 경우에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총 분산의 59%를 설명해 주고 있다.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표 6〉 남편의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의 가정생활만족

	가정생활 만족도		결혼 전 반		재정문제		시대관계		생활표준의 일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교육수준	-.02	-.14**						-.03	-.11*	-.03	-.12*					
소득																
직업 1	.10	.11	.27	.14							.16	.10				
직업 2																
주부직업																
자녀 수																
생활수준	.05	.15***			.22	.31***										
인지도																
자원적당	.18	.22***			.39	.29***	.25	.19**	.34	.27***					.38	.28***
인지도																
의사소통도	.43	.58***	.83	.58***			.40	.33***	.51	.46***	.84	.71***	.51	.43***	.20	.16**
상수	1.30		2.49		.60		1.61		.94		.86		2.12		1.03	
R ²	.59		.38		.32		.19		.38		.52		.21		.14	
F 값	77.67***		83.48***		66.90***		21.86***		57.36***		150.30***		36.53***		23.51***	

b :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직업 1: 남편의 직업중 전문·관리·사무직

* P<.05 ** P<.01 *** P<.001

직업 2: 남편의 직업중 판매·서비스직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 뿐만 아니라 시대관계, 생활표준의 일치와 같은 하위영역에서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조사지역이 강원도 내의 중·소도시로서 남편들의 가치관은 보다 전통적인 데 반해 주부들의 경우는 <표 3>에서 보여지듯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이라는 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인 경우에 결혼전반과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남편의 심리적 변인 중에서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재정문제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 높았으며, 자원적당인지도가 높을수록 재정문제·시대관계·생활표준의 일치·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만족도 높았다. 그리고 가족과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재정문제를 제외한 전 하위영역에 대한 만족이 높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부의 경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4.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이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이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각각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주부가 보다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할 때 가정생활만족도 높았다. 이는 최동숙(1991), 김경숙(1994)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정보화 각종 환경 변화 속에서 가정관리행동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줄 때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하위영역별로는 자원의 활용과 가족의 활동,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변화지향적

〈표 7〉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정생활만족	
		b	β
가정관리 행동유형		.83	.40***
상 수		.96	
R ²		.16	
F 값		62.59***	
하위영역	자원의 활용	.13	.14**
	가족의 활동	.25	.30***
	지역사회 참여	.21	.24***
상 수		1.66	
R ²		.20	
F 값		26.86***	

b: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으로 할 때 가정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 우리 사회가 무조건 절약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고립된 의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가족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지역사회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할 때 가정생활의 만족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남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부가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할 때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 높았다. (〈표 8〉참조), 즉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가정생활 속에서 매일 똑같은 가정관리행동을 하기 보다는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을 할 때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별로는 자원의 활용, 가족의 활동,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가정관리행동을 주부가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될 때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 높았는데, 가족의 규칙준수는 오히려 안정지향적이라고 인지될 때 가정생활만족이 높았다. 이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가족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가정생활에서의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보다 엄격하게

〈표 8〉 남편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인지가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정생활만족	
		b	β
가정관리 행동유형 인지		.59	.34***
상 수		1.61	
R ²		.11	
F 값		42.56***	
하위영역	가족의 규칙준수	-.18	-.18***
	자원의 활용	.08	.10*
	가족의 활동	.18	.24***
	지역사회 참여	.17	.22***
상 수		2.58	
R ²		.24	
F 값		25.59***	

b: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지켜주기를 바라는 남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5. 부부의 배경변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이에 대한 남편의 인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 간의 인과관계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인, 가정관리 행동유형, 가정생활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고, 다음으로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대한 남편의 인지, 가정생활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1〉, 〈그림 2〉와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인은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나 이에 대한 남편의 인지를 통하여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위하여 2단계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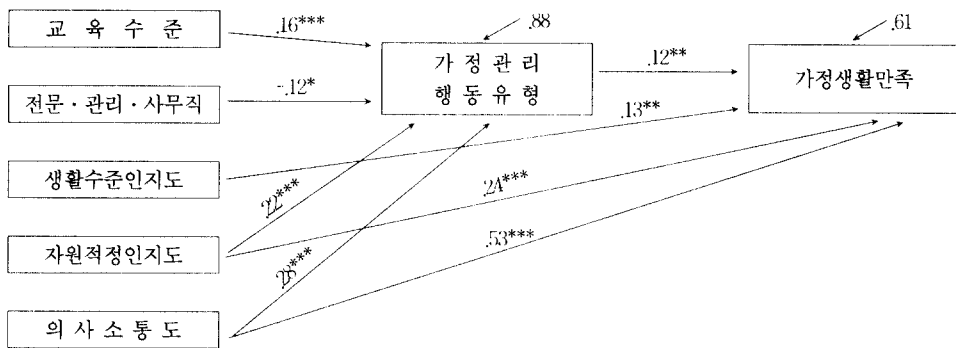
먼저,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중 전문·관리·사무직,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였으며, 이들은 분산의 22%를 설명하고 있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일 때, 자원

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 때 가정관리 행동 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는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분산의 63%를 설명하고 있다. 즉 주부의 생활수준인지도·자원적정인지도·의사소통도가 높고,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일 때 가정생활만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인과모형이 구성되었으며, 인과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의 구체적인 인과효과는 <표 9>와 같다. 즉 교육수준과 전문·관리·사무직은 가정생활만족에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경유한 정적인 간접효과만 있었으며, 생활수준인지도와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정적인 직접효과만 있었다. 또한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는 정적인 직접효과와 함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경유함으로써 정적

인 전체효과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는 교육수준, 전문·관리·사무직,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정적인 효과를 높이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도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었다.

다음, 남편이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도였으며, 이는 분산의 12%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남편이 가족과 보다 많은 의사소통을 할 때 남편은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인지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남편의 가정생활만족에는 교육수준, 전문·관리·사무직,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대한 인지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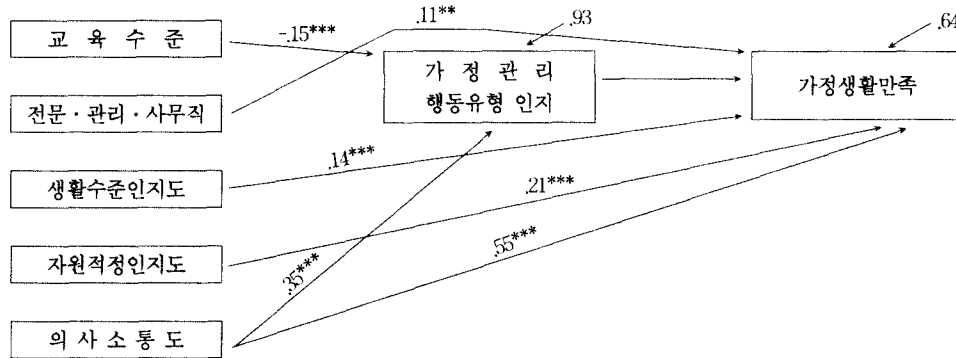


<그림 1>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 인과모형

<표 9>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의 인과효과

변인	총체적 관계*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교육수준	.18		유형경유 .02	.02	.16
전문·관리·사무직	.14		유형경유 .01	.01	.13
생활수준인지도	.34	.13		.13	.21
자원적정인지도	.60	.24	유형경유 .03	.27	.33
의사소통도	-.69	.53	유형경유 .03	.56	.13
가정관리 행동유형	.40	.12		.12	.28

* 총체적관계는 단순상관계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그림 2>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 인과모형

<표 10>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의 인과효과

변인	총체적 관계*	인과적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교육수준	.09	-.15		-.15	-.06
직업	.17	.11		.11	.06
생활수준인지도	.31	.14		.14	.17
자원적정인지도	.52	.21		.21	.31
의사소통도	-.66	.55	인지경유 .04	.59	.07
가정관리행동유형인지	.29	.10		.10	.19

* 총체적관계는 단순상관계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의 59%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일 때, 생활수준인지도·자원적정인지도·의사소통도가 높은 경우에,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편의 가정생활만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와 같은 인과모형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영향변인들의 구체적인 인과효과는 <표 10>과 같다. 즉 교육수준, 전문·관리·사무직,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가정관리 행동유형 인지는 가정생활만족에 직접효과만 있었다. 의사소통도는 직접효과와 함께 가정관리 행동유형 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를 통하여 그 전체효과가 향상되었으며, 전체효과면에서 다른 변인들 보다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의 사회

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인들이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이에 대한 인지를 통하여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부 모두에게 있어서 심리적 변인인 생활수준인지도·자원적정인지도·의사소통도는 모두 약간 정도 높은 편이었다.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비교적 변화지향적이었으며, 남편은 주부가 가정관리행동을 비교적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가정생활만족은 부부가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남편보다는 주부가 약간 더 높았다.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이에

대한 인지, 가정생활만족의 하위영역별에 따라서 부부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 2)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 때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는 가족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 3) 주부는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가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이 높았다. 남편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관리·사무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수준인지도·자원적정인지도·의사소통도가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도 높았다.
- 4)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고, 남편도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인지될 때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이 모두 높았다.
- 5)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주부의 경우 교육수준, 전문·관리·사무직,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경유한 인과모형을 이루었으며, 생활수준인지도는 직접효과를 나타냄으로서 변인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의 경우는 의사소통도가 가정관리 행동유형 인지를 경유한 인과모형을 이루었고, 교육수준, 전문·관리·사무직,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는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에도 변인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주부가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주부가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다고 남편이 인지하는 것이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주부는 우선적으로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주부는 가정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또한 현대의 효율적인 가정관리는 단순히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정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함께 어울리는 삶을 추구할 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여러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다.

주부가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한다고 남편이 인지하는 것이 남편의 가정생활만족에도 긍정적인 점을 고려할 때, 남편에게도 주부 자신이 어떠한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주부는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정생활은 주부 혼자 그지 묵묵히 꾸려나가면 된다는 고립된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남편을 포함한 가족에게도 자신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하여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만족을 느끼는 데는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편과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는 연령·교육수준·소득·자녀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함께 생활수준인지도·자원적정인지도·의사소통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변인들은 이미 주어진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이라기 보다 가정생활에 대한 부부의 가치관이나 인식에 관련한 것으로서 부부의 관심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부는 가정생활을 바라보는 여러 차원에서의 심리적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가정관리행동의 결과는 주부만의 만족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만족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부부와 자녀 모두의 만족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중·소도시만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

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도시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세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부부 및 가족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1) 김경숙,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 2) 김명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45-54.
- 3) 김은숙,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4) 김태현·최정혜, "성인기 발달과업 성취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4), 성신여대, 1990.
- 5) 두경자, "가정관리 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0.
- 6) 문숙재,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19(4), 1991.
- 7) 박경자,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행복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1.
- 8) 오정옥,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9) 이안나·신효식·우희정,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1, 137-153.
- 10) 이정우, "가족환경적 요인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22), 숙명여대, 1982.
- 11) ———, 김경숙,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1993, 29-46.
- 12) ———, 박미금,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분류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1992, 223-239.
- 13) ———, 송말희,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986, 33-47.
- 14) ———, 오경희,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988, 131-148.
- 15) ———, 외, 최신 가정경영학, 수학사, 1997.
- 16) 임정빈,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 17) 장병옥,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7.
- 18) 조미환,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0.
- 19) 조영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20) 최동숙,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 21) 홍신례,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2) Beard D.,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75.
- 23) Beard D. & F.M.Firebaugh,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3), 1978, 192-205.
- 24) Broderick C. & J.Smith,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The Free Press, 1979, 107-116.
- 25) Buckley W., *Sociology and Modern System Theory*, Prentice Hall, Inc., 1967.
- 26) Buehler C. & M.J.Hogan, "Planning Style in

- Single-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1986, 351-362.
- 27) Burr W.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1970, 29-42.
- 28) Clearwater E. & C.H. Harvey, "Correlates of Marital Satisfaction in a Manitoba Low Income Sampl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2), 1988, 183-197.
- 29) Deacon R. & F.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1981.
- 30) _____, *Family Resource Management*, 2nd ed., Allyn & Bacon, Inc., 1988.
- 31) Donohue K.C. & R.G. Ryder, "A Methodological Note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ust), 1982, 743-747.
- 32) Galvin K.M. & B.J. Brommel,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2.
- 33) Gross I.H., E.W. Crandall & M.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Hall Inc., 1980.
- 34) Hayes M.P. & N. Stinnett,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December) 63(9), 1971, 669-674.
- 35) Heck R.K.Z.,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983, 117-135.
- 36) Houseknecht S.K. & A.S. Macke,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ust), 1981, 651-661.
- 37) Huguley B.C., "Managerial Orientation and its effect on Level of Li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76.
- 38) Margaret E.B., "Marital Satisfaction and Planned Change", *Family Perspective* 19(1), 1985, 35-43.
- 39) Medley M.L.,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1976.
- 40) Newton D.L.,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79.
- 41) Nickols A., "Person-oriented, Task-oriented Style of Organ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4.
- 42) Rice A.S. & S.P. Tucker,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6.
- 43) Rowland V.T., R.A. Dodder & S.Y. Nickols,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985.
- 44) Schlater J.D., "the Management Process & Its Core Concept", *Journal of A.H.E.A.*, Vol. 59, No. 2, 1967.
- 45) Smith C.W., O. Weeks, P. Wozniaks, P.K. Knaub, L.F. Little & P.S. Draughn, "Marital Adjustment in Farm Coupl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1988, 77-85.
- 46) Smith D.S., "Wife Employment and Marital Adjustment A Cumulation of Results" *Family Relations* 3(October), 1985, 483-490.
- 47) Wilson S.M. & G.W. Peterson, "Life Satisfaction Among Young Adult From Rural Families", *Family Relations* 37, 1988, 84-91.